

## 성서 번역 새로 보기

### -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

왕대일\*

#### 1. 왜 문예비평적 접근인가

번역은 뜻을 옮기는 작업이다. 대본의 뜻을 우리말 뜻으로 살리는 작업이다. 오늘날 성서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원어 본문을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얻은 기본 개념을 수용언어의 기본 형태로 옮긴 다음 그 핵심 문장을 수용언어의 말씨와 속내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번역 과정을 수행한다.<sup>1)</sup> 물론 번역원칙이나 번역 기법은 뜻의 전달에 멈추지 않는다.<sup>2)</sup> 번역의 의도나 상황 등에 따라서 번역 기법은 얼마든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의미의 역동적 번역”(dynamic equivalent translation)은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이후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하지만 번역 과정에 원어의 뜻이 우리말 의미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원문의 뜻에 대응하는 수용 언어의 뜻이 재구성되는 과정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가령 번역자는 번역 과정 자체가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한 형태임에 주목해야 한다. 원어의 세계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언어학적 탐구의 결과도 참조해야 한다. 구문론이나 어의론이 주는 조언은 말할 것도 없이 사본이나 역본의 해독에서 얻은 본문비평적 열매도 수용해야 한다. 또 성서에 수록된 특이한 관습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깨달음이나 성서언어의 양성평등에 관심하는 여성신학적 제안 등도 과감히 수렴해야 한다. 나아가 성서 원문의 문예적 솜씨를 번역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203-206.

2) 오늘날 성서 번역의 조류에 드는 방법들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의미의 기능적 접근(functionalist approach), 서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 번역에서의 본문언어학적 접근(text-linguistic approach), 말하는 사람은 듣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한다는 원칙에서 의사소통과 인식의 정확성에 관계를 추구하는 번역 방식(relevance theory approach), 번역이란 특정 문화(예컨대 서구문화)의 힘이나 이해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는 관점의 번역(post-colonial approach), 전통적으로 문자적 번역으로 일컬어진 축어적 형식 일치적 번역(literalist approach) 등이 그것이다. Allo O. Mojola and Ernst Wendland,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UK: St. Jerome, 2003), 13-25.

히브리어와 우리말은 문장 구조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 까닭에 원문의 구조를 우리말 번역문의 구조 속에 살려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원문을 우리말 표현다운 번역으로 살려내려면 어쩔 수 없이 원문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삭제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에 없는 요소가 불가피하게 첨가될 수도 있다. 수용 언어의 문법적 특성을 무시하고 원문의 문법 형식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과생되는 오역을 막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는 성서 원문에 담겨 있는 문예적 맛과 멋을 살리는 번역이 성서 원문의 뜻을 우리말 어법에 맞춰 되살리려는 번역과 번역의 목적(모든 번역은 다 좋은 번역이 되고자 노력한다!)에서 결코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질문이 제기된다. 원어의 뜻을 수용 언어의 뜻으로 재구성하는 번역 작업에 충실하면서도 성서 원문의 수사학적 기교를 우리말 번역에 살려내는 번역 기법이란 불가능한 것일까? 원문의 문예적 맛(!)을 반영하는 번역이란 의미의 역동적 동등성 번역원칙과 으레 충돌하는 것일까?

성서 원문을 충실하게 이해하려는 자는 누구나 그 말씀의 수사학적 기교나 미학적 장치에 놀라게 된다. 산문체의 이야기이지만 시적(poetic)인 숨씨를 풍기기도 하고, 시이지만 “산문체 이야기 같은 운율”(narrative movement)을 지니기도 한다.<sup>3)</sup> 히브리 시의 경우 평행법이라는 독특한 문장 구조를 통해 본문의 의미가 강화되기도 하고 보충되기도 하며 고양되기도 한다.<sup>4)</sup> 히브리 산문의 경우 히브리어의 시적 사용을 통해서 다양하고 다의적인 의미의 층을 한 문장 안에 드러내기도 한다.<sup>5)</sup>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거나 잔달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원문의 뜻을 옮기는 번역 작업을 존중하면서도 원문의 문예적 기능도 살려내는 번역 기법에 주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문의 수사학적 맛이나 멋을, 성서 원문의 미학적 특색을 우리말 뜻이 살아난 번역에서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래전 얀 드 바르(Jan de Waard)와 유진 나이다도 성서 번역에서 성서 원문의 수사학적 요소나 수사학적 기능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다.<sup>6)</sup> 그러나 그 때 얀 드 바르와 나이다는 번역에서는 원문의 의미가 역동적으로

3) 이 점을 밝힌 이는 알터(R. Alter)이다. R.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비교, A. Berlin, *Poe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

4) 히브리시의 평행법을 성서 번역에 활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년 10월), 7-28을 보라.

5) 히브리어의 시적 사용은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견된다. 이야기의 구성, 구성의 패턴, 표현된 글말의 소리 효과, 배경 설정, 이미지, 극적 기법(dramatics), 동사 형태의 변화와 반복,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반복되는 표현 방식의 다양성, 상징의 사용, 비유적 언어의 활용, 연상 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음향효과, 관습적 말투 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Ernst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ch. 1을 보라.

되살아나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는 데 더 주안점을 두었었다. 그랬기에 성서 원문의 기교나 짜임새, 글말의 미학적 특성을 번역에 반영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번역이란 무엇보다도 원문을 이해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서 본문이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정한 형식의 문학적, 문예적 장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성서 본문의 미학적 장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본문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성서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어찌 수용 언어의 본문에서 온전히 되살릴 수 있겠는가!

## 2. 무엇이 문예비평적 접근인가

성서 원문의 뜻과 미학적 장치가 수용 언어로 살아나는 번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서 번역의 이론이 의미의 동등성만이 아닌 기능의 동등성도 찾는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성서 본문의 수사학적 디자인(*design*), 의사소통의 열개와 짜임새, 관습적인 문학패턴, 이미지와 형상을 전달하는 문체 등이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번역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sup>6)</sup>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사이에 내용상의 대응을 추구하는 번역에 머무르지 않고 원천 언어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술적 기교가 수용 언어로 된 번역문에서도 “기능적으로” 살아나는 번역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성서해석과 성서 번역에서 원문이 지니고 있는 감정적, 정서적, 교훈적, 예술적, 신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용 언어의 독자들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 성서의 문예적 번역 이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서 본문의 장르와 구조, 이야기의 배열과 디자인, 이야기 속에서 형상화되어 처리되는 이미지 기법, 본문의 의미를 독자의 기억에 새기게 하는 기술, 원어의 수사학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수용 언어의 문학적 특징 등 참조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다.<sup>8)</sup> 그뿐만 아

6) J. de Waard and E.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Nelson, 1986), chs. 5-6.

7) N. Statham, “Dynamic Equivalence and Functional Equivalence: How do they differ?” *Bible Translator* 54 (2003), 109; 비교,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115-174, 213-242.

8) 여기에 대해서는 Ernst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를 보라. 이 책에 대한 안근조의 서평(「성경원문연구」 19 [2006년 10월], 222-239)도 벤트란트의 “문학 기능 동등성” 번역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라 문예적 해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도 원문이 입말로 낭독되었을 때 울리는 운율과 소리를 그대로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있고, 원어의 문학 체계가 사회 문화 배경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진단하는 방식도 있으며, 특수한 형식을 드러내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 번역문이 창출하는 의미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도 있다. 이처럼 성서 원문의 문예적 해석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여기에서 트리블(P. Trible)이 시도한 요나서의 수사학적 해석과 번역은 우리 논의에 큰 도움을 준다.<sup>9)</sup> 성서 본문의 이야기나 담화가 어떤 의미를 지닌 구조로 표현되는지, 거기에 거론되는 소재나 주제나 논쟁 등에 어떤 예술적 기교가 동원되고 있는지를 수사학적으로 파악하면서 성서 본문의 수사학적 솜씨를 어떻게 하면 번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벤트란트(E. Wendland)가 최근 제안한 “문학 기능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번역은 여기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sup>10)</sup> 성서의 수사학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성서 본문의 수사학적 번역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벤트란트의 주장은 신앙 공동체의 경전이면서도 문학 작품 성격을 지닌 성서를 어떻게 해야 “충실하게” 문학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벤트란트에 따르면 성서 번역에서 참조해야 할 문예적 요소는 크게 세 쌍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본문의 통일성(unity), 장르(genre), 수사학적 특성(rhetoricity) 등이 어우러진 구성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의 디자인(design), 문형(文型, patterning), 본문의 전경(前景, foregrounding) 등이 조화를 이룬 예술 기법이며, 나머지 하나는 본문의 상(像, imagery), 소리(phonicity), 드라마적 요소(dramatics) 등이 꾸며내는 형상화 기법이다.<sup>11)</sup> 첫째 쌍이 본문의 수사학적 기반이라면, 둘째 쌍은 본문의 거대 구조가 드러내는 미학적 표정이고, 세 번째 쌍은 본문의 미세 구조에 새겨져 있는 예술적 현상이다.

문학 기능 동등성 번역이란 원문의 구성, 표정, 현상이 수용 언어의 번역문에서도 기능적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노력이다. 본문의 수사학적 밑바탕, 바탕글의 구조가 드러내는 표정, 글말의 미세한 문예적 꼴이 자아내는 느낌이야말로 번역자가 수용 언어에서 기능적으로 살려내고자 애써야 할 문예적 특징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세 요소는 성서 본문에서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세 요소는 한 본문 안에서, 한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 더불어, 함께, 같이 작용한다. 성서 원문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성실하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같은 원문의 문예적 특성이나 기법들을 수용 언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9) P.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MN: Fortress, 1994).

10)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179-235.

11) *Ibid.*, 181.

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 3. 어떻게 해야 할까, 텍스트의 문예적 구성

성서 번역에서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문학 기능 동등성을 살려내려면 무엇보다 성서 본문의 문예적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서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아우르는 구성상의 일체감(unity)은 성서 본문에 대한 공시적, 총체적 해석의 소중한 기반이다. 성서 본문에 관한 문헌비평적, 편집사적 통찰은 번역의 대상으로 선정된 본문 안에 여러 상이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최종 형태의 본문은 것처럼 여러 상이한 요소들이 현재 우리가 읽는 최종 형태에서는 치밀하게 짜여져 있음을 드러낸다. 텍스트는 텍스처(texture)라는 해석학적 선언은 이런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 본문의 통일성에 대한 관심은 이런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다.

본문의 통일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글말이 어떻게 연결되어(connectivity) 있는가, 서로 주고받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intertextuality), 그 으뜸꼴(archetypes)은 어떤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sup>12)</sup> 이를 테면 본문끼리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본문 안에 표현되어 있는 음운론적, 구문론적 장치나 어휘 등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병행하는 구절이나 문단에서 되풀이되는 주요 단어가 무엇인지, 그 단어에 혹 어떤 소리(sound)가 담겨 있는지, 또는 각 본문이 같은 뜻의 말을 서로 어떻게 얼마나 바꿔 사용하는지, 아니면 각 본문의 문장이 선호하는 문법적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성서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위해서는 어떤 본문 속에 인용되거나 암시되거나 울려 퍼지는 단어나 구문, 소재나 모티브, 이미지나 상징 등의 사용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sup>13)</sup>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를 요나서 1:1-3a와 그와 병행하는 구문인 3:1-3a에서 찾을 수 있다.

요나서 1:1-3a와 3:1-3a는 어순에서, 어휘의 인용과 반복에서, 이야기의 패턴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방식에서 응집력과 일관성(coherence)을 지닌 구문이다. 이 두 문장은 원문의 세계에서 마치 동일한 이야기 요소를 두 장면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요소는

12)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182.

13) 가령 성서 본문 간의 상호의존도(intertextuality)는 직접 인용(marked quotation), 간접인용(unmarked citation), 암시(allusion), 다시 쓰기(rewording, reconfiguration), 주제 해설(elaboration) 등의 방식으로 표출된다. V. Robbins, *Exploring the Texture of Texts: A Guide to Socio-Rhetorical Interpretation*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40.

1:2a와 3:2a에서 동일한 어순, 어조, 어감으로 반복되는 세 명령이다. 이 명령문을 우리말 번역 『개역개정판』(1998)과 『(표준)새번역(개정판)』(2001)은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קום לך אֶל־יְיָנָה הָעִיר הַגְּדוֹלָה וּקְרָא עָלֶיהָ כִּי־עָלְתָה רָעָתָם לְפָנַי  
 BHS Jon 1:2

『개역개정』은 1: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새번역』은 1:2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אָשַׁר אֲנֹכִי דַבֵּר אֵלֶיךָ קום לך אֶל־יְיָנָה הָעִיר הַגְּדוֹלָה וּקְרָא אֵלֶיהָ אֶת־הַקְּרִיאָה אֲשֶׁר  
 BHS Jon 3:2

『개역개정』은 3: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새번역』은 3:2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1:2a와 3:2a가 전하는 요나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 외쳐라”(קום לך וּקְרָא עָלֶיהָ/אֵלֶיהָ)로 이루어져 있다. 1:2b의 경우 요나가 왜 니느웨를 향해 외쳐야 하는지를 전하고(לְפָנַי רָעָתָם כִּי־עָלְתָה), 3:2b의 경우 요나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서 차이가 나지만(אֶת־הַקְּרִיאָה אֲשֶׁר אֲנֹכִי דַבֵּר אֵלֶיךָ), 요나가 향해야 하는 대상인 니느웨를 “저 큰 성읍 니느웨”(הָעִיר הַגְּדוֹלָה)라고 애써 꾸며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같다. 이 때 하나님의 명령이 셋인 점에 주목하자. 바로 “일어나라”(קום), “가라”(לך), “외치라”(וּקְרָא)이다. 처음 두 명령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지시하려고 할 때 상투적으로 거론되는 말걸기 방식이다.<sup>14)</sup> 이 두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접속사 없이(asyndeton) 연결되고 있다. 신속한 응답을 이끌어내려는 듯 서두르며 급하게 말하는 투를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명령에 가서야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 이 세 번째 명령에서는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waw)가 명령형 동사 앞에 첨가되고 있다. 즉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또는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라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은 히브리어 구문의 이런 의도적 일관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번역』은 1:2a이나 3:3a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일어나라”에 상응하

14) 비교, 왕상 17:9; 21:18; 왕하 1:3; 렘 13:4-6; 49:28; 겔 3:22; P. Trible, *Rhetorical Criticism*, 125.

는 우리말 번역을 굳이 자구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로 본문을 읽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문장에 거론된 세 명령 가운데 핵심을 “가라”에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세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인 “일어나라”를 “가라”에 딸린 부사(“어서”, “곧”) 문장으로 종속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의 결과는 “일어나라”(עָמַד)와 “가라”(הֵלֵךְ) 사이에는 아무런 접속사를 두지 않으면서도, “가라”(הֵלֵךְ)와 “외쳐라”(הִגִּיד) 사이에는 굳이 접속사 바브(waw)를 두는 히브리어 본문의 문예적 꾸밈새를 우리말 번역이 무시해버린 결과를 낳는다. 처음 두 명령문 사이는 접속사 없이 연결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문은 애써 접속사로 연결시켜 놓았던 히브리어 구문의 의도적 통일성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누워있던(!) 요나를 일으켜 세워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퇴색되고 만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으면서도(וַיָּקָם יוֹנָה וַיֵּלֶךְ), 처음에는 하나님의 낫을 피하려고 도망쳤지만(1:3),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었던(3:3) 이야기 전개의 극적 대조가 사라지고 말았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요나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1:2b, 『새번역』, הִגִּיד עָלֶיָּהּ קָרָא)였지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지시는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וַיִּגִּיד יוֹנָה אֶל־הָעִיר 3:2b)였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어 원문은 전치사 לְעַד(over against, …에 대하여)과 לְ( toward, …쪽으로)의 미세한 차이를 사용해서 통일된 본문 속에 있는 문장 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히브리어 본문은 요나서 1:1-3과 3:1-3의 병행구문 속에 의도적으로 קָרָא와 הִגִּיד을 이어서 연거푸 사용한다. “일어나라”고 지시하는 하나님과 그 말을 듣고 일어난 요나의 반응을 놓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벌어지는 줄다리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일어나라”(עָמַד)는 명령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가라”)에 종속되거나 그 뒤를 따르는 명령을 꾸며주는 형태로 옮겨져서는 안된다. 이런 히브리어 본문의 꾸밈새를 우리말 번역에서도 살려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문의 뜻을 우리말로 살리면서도 원문의 문예적 형식을 반영하면 된다.

사역 1:2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사역 3:2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

요나서 1:3a와 3:3a는 누워있던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소개한다. 1:3a와 3:3a를 비교해 볼 때 이 두 구절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

이 대조는 일종의 반어법적 대구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야기의 패턴을 뒤집어서 연결하는 방식”(discourse disjunction)으로 저자의 의도를 다지는 형태다.<sup>15)</sup> 독자에게 친숙해진 이야기의 패턴을 뒤집어놓음으로 요나서 3:3a는 1:3a와 멋진 대구(對句)를 형성한다.

וַיִּקַּם יוֹנָה לִבְרֹחַ תְּרַשֵּׁהּ מִלִּפְנֵי יְהוָה BHS Jon 1:3a

『개역개정』 1: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새번역』 1:3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וַיִּקַּם יוֹנָה וַיֵּלֶךְ אֶל-נִינְוָה כְּדַבֵּר יְהוָה BHS Jon 3:3a

『개역개정』 3: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새번역』 3:3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요나는 일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지만(1:3a), 두 번째로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요나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는 것이다(3:3a).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처음과 두 번째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이끄는 문장은 동일하다. 바로 “요나가 일어났다”(וַיִּקַּם יוֹנָה)는 것이다. 즉, “요나가 일어났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1:3a)와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주님의 말씀대로”(3:3a)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해석을 우리말 번역에 반영할 때 요나서 1:3a; 3:3a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사역 1:3a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욥바로 내려갔다.

사역 3:3a 그러자 요나는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갔다.

번역이란 원문의 뜻을 수용 언어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옮기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이 때 원문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문예적 형식)의 생김새를 번역자가 충실히 관찰하지 않을 때 원문이 전하고자 했던 뜻이 우리말 표현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원문의 문예적 형식 가운데서도 번역자는 우선 병행하는 본문의 글말끼리 의도적으로 연결되려는 솜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원문의 문예적 장치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할수록 번

15)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190.



역자가 자기 독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문예적 기능을 갖춘 번역문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심(R. Sim)의 통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sup>16)</sup>

좋은 번역이란 원문의 뜻 못지않게 원문이 사용하는 언어의 시적인 형태나 미학적 장치에도 관심을 기울인 번역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인 경전의 미학적 생김새를 따라잡는(?) 기쁨을 얻게 할 수는 없을까? 물론 문예적 형식은 문법적 틀 속에 담겨 있거나 문법적 요소를 활용해서 나타난다. 문법적 요소를 떠난 문예적 형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원문의 문학적 기능에 주목하는 번역을 문법적 형식적 일치의 번역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히브리어 본문이 문예적으로 꾸미는 글의 맵시는 단순히 문법적 형식의 틀에 머물지 않는다. 자못 모든 글이란 맞춤법을 따르지만, 글마다 느낌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지 않는가? 성서 번역은 원문의 맛과 멋을 수용 언어의 독자들도 느낄 수 있도록 원문에 동원된 전달과 설득의 미학까지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4. 어떻게 해야 할까, 장르와 주제

성서 번역자가 수용 언어의 본문 속에 반영하거나 적용해야 할 번역상의 요소 가운데는 원문의 생김새도 들어 있다. 구조란 본문의 스타일, 형식, 내용이 어우러져 꾸미는 예술적인 구성(artistic composition)을 가리킨다.<sup>17)</sup> 성서 본문의 경우 성서 이야기의 디자인(design)이 어떤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히브리어처럼 본문의 글말이 동사 문장 위주로 이어지는 텍스트에서는 말의 예술(verbal art)이 이루는 글의 장르가 본문의 구성이나 구조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성서 본문의 문예적 해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어떤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파고드는 일이다. 번역자가 언어적 문학적 시그널(signal)에 관한 공개적 시스템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파악되는 본문의 의미는 수용 언어의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번역은 해석이다. 성서 번역은 성서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 번역자는 원문의 글말이 산문인지, 시문인지 구별해야 한다. 원문의 장르(genre)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번역된 문장에 원문의 뜻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가령 산문일 경우 그

16) R. Sim, “Review of Comparative Rhetoric: A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Introduction (George A. Kennedy)”, *Notes on Translation* 14:4 (2000), 57-60.

17) K.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8), 50; R. Al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46; J. Barr, *The Bible in the Mordern World* (London: SCM, 1963), 125.

것이 이야기인지, 설교체의 글인지, 예고나 예언인지, 묘사나 해설인지, 법조항인지, 계보나 족보 같은 문장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번역된 문장 속에 그 장르의 패턴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 이야기체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기인지, 자서전인지, 풍자인지, 비난인지, 주석인지, 금언(aphorism)인지, 훈계인지, 꿈/환상 보도인지 등을 파헤쳐야 하고 그 결과를 번역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시문일 경우 그것이 서정시인지, 기도인지, 노래인지, 연설인지, 교훈체의 글인지, 병행구인지, 묵시적인 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도라고 해도 그것이 찬양인지, 탄식인지, 감사인지, 고백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시문에 대한 글의 유형과 형식에 대한 이해가 번역자의 번역 과정에 충분히 나타나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성서 본문이 어떤 장르의 글인지를 규명하는 데만 있지 않다. 번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문의 글말이 드러내는 성격(장르)을 수용 언어의 본문 속에 역동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sup>18)</sup> 더구나 성서 본문에 수록된 글말의 경우 시문과 산문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산문 같은 시(prosaic poetry)도 있고, 시 같은 산문(poetic prose)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성서 번역자는 성서 본문이 구성상 드러내거나 강조하거나 돋보이게 하려는 글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가 무엇인지를 수용 언어로 된 번역문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글말의 문단들, 단락들, 에피소드들 사이에 놓여 있는 원인과 결과, 조건과 반사, 주제와 촌평,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등의 관계가 글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발달/전개/반전되고 있는 지를 번역 과정에 살려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요나서 1:1; 3:1의 우리말 번역에 새삼 주의를 기울여본다.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 בֶן־אָמִתַּי לֵאמֹר BHS Jon 1:1

『개역개정』은 1:1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새번역』은 1:1 주님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 שְׁנִיִּית לֵאמֹר BHS Jon 3:1

『개역개정』은 3:1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새번역』은 3:1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서 1:1이나 3:1은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라는 똑같은 말로 시작한다. 1:1의 경우에는 요나가 “아밋대의 아들”이라는 설명이 “이르시되”(לֵאמֹר)라는 부정사

18)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200, 213, 215.

구문 앞에 나오지만(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 בְּרִאֲמָתִי לֵאמֹר), 3:1은 같은 부정사 구문 앞에 “두 번째로/또다시”라는 수사(שְׁנִית)가 첨가되어 있을 뿐 1:1과 다르지 않다(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 שְׁנִית לֵאמֹר).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문은 1:1과 3:1을 여는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라는 문장이다.

1:1과 3:1은 이른바 전령자 공식(messenger's formula)이라고 불리는 어구(כַּה אָמַר יְהוָה)와는 다르다. 예언서에서 흔히 만나는 전령자 공식이 구약의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요나서 본문의 장르가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oracles)이 아니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한다.<sup>19)</sup> 히브리어 원문은 의도적으로 요나서의 서두를 말씀의 선포나 신탁의 전달에 사용되는 형식으로 본문을 꾸미지 않는다. 대신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푸는 방식으로 그 말문을 시작하고 있다. 그것을 표시하는 구절이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라는 글귀이다.<sup>20)</sup> 이 구절에 대한 『개역개정판』의 번역,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는 “주님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새번역』의 문장에 비해 원문의 형식을 우리말 어순에 맞춰 존중한 결과로 비쳐진다. 하지만 “말씀이 임(臨)했다”는 『개역개정』의 우리말 표현은 오늘날 듣기에 어색하다. 이런 한자어투를 요즈음 우리말 용례에 맞춰 표현한다면 『새번역』이 다듬어 놓은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어 원문의 1:1과 3:1의 문예적 형식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요나서 텍스트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으로 요나서 텍스트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요나서는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텍스트라기보다는 요나라는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요나서의 서두를 이끄는 1:1,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는 바로 이 목적을 밝히는 데 종사하는 구절이다. 즉 요나서 1:1과 3:1은 “주님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새번역』)가 아니라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이른 주님의 말씀이다”,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있었다” 등의 방식으로 이야기의 말문을 여는 도입구이다. 이런 점을 우리말 번역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본문의 구성상 전개를 눈여겨 볼 때 번역자는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 요나서의 주인공

19) 구약성서의 예언서에서 요나서처럼 그 말문을 여는 책은 없다. 예언서의 서두 공식을 위해서는 호세아, 요엘, 미가, 스바냐, 학개, 말라기 등과 비교하라. P. Trible, *Rhetorical Criticism*, 124-125.

20) 비교, 켈 1:1. וַיְהִי에 대해서는 Jack M. Sasson, *Jonah*, AB 24B (New York: Doubleday, 1990), 66-68을 보라.

은 요나이다. 다른 한편으로 요나서 이야기의 주제는 니느웨이다. 니느웨를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은 요나를 다루는 하나님의 입김(!) 못지않게 요나서의 구성에서 소중하다. 요나서가 전하는 니느웨의 변화는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요나와 극적 대조를 이룬다. 요나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거론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서의 궁극적 주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물게 한다. 요나서 이야기의 서두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까지 그 죄악이 올라갔던 도성이었다(1:2). 요나서 이야기의 말미에서 니느웨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도성이 된다(4:11). 니느웨를 두고 하나님은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요나서 전체가 표방하는 수미쌍관 구조(*inclusio*)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단어가 바로 “저/이 큰 성읍 니느웨(עִיר־גְּדוֹלָה)”인 것이다(1:2; 3:2; 4:11). 바로 여기에서 『새번역』의 요나서 3:3b가 묘사하는 니느웨에 대한 설명은 요나서 이야기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עִיר־גְּדוֹלָה לְאֱלֹהִים מְהֵלֵךְ שְׁלֹשֶׁת יָמִים BHS Jon 3:3

『개역개정』은 3:3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새번역』은 3:3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서 이야기에서 니느웨는 시종일관 “저 큰 성읍 니느웨(עִיר־גְּדוֹלָה) the great city”로 불린다(1:2; 3:2; 4:11). 그런데 요나서 3:3b에서는 니느웨가 그냥 “a great city”(עִיר־גְּדוֹלָה)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단순히 “a great city”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개역개정』, עִיר־גְּדוֹלָה לְאֱלֹהִים a great city to God)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분사구문 형태로 “사흘 동안 걸어야 될”이라는 구문이 뒤따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구절을 꾸미고 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새번역』은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로 새기고 있다. 대부분의 번역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란 구절을 최상급을 표현하는 상투적인 어구로 간주하고 있다. 틀리지 않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확하지도 않다.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란 구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군더더기 표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sup>21)</sup> 요나

21) Jack M. Sasson, *Jonah*, 228-230.

서 본문의 전체 구성에서 니느웨가 어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생각해 보라. 히브리어 본문은 עִיר־נִנְוָה לְאֱלֹהִים이라는 말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중의 하나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도성이라는 뜻이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느웨가 악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의 도성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도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껴주어야 할(4:11) 큰 도성으로 비쳐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엘로힘(אֱלֹהִים) 앞에 붙어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לְ)의 번역이다. 히브리어 전치사 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영어번역본은 이 말을 대개 “an exceeding great city of three days’ journey”라고 번역하지만,<sup>22)</sup> 이 말은 히브리어 전치사 לְ가 지닌 다양한 쓰임새를 고려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도성”(a great city before God)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큰 도성”(a great city belonging to God)도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때문에 크게 여기지는 도성”(a great city because of God)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큰 도성”(a great city for God)도 될 수 있다.<sup>23)</sup> 즉 요나서 3:3에서 עִיר־נִנְוָה לְאֱלֹהִים은 단순히 커다란 도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어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나서 본문은 이 구절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LXX 본문(ἡ δὲ Νινευη ἦν πόλις μεγάλη τῷ θεῷ)도 이 점을 살려서 니느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커다란 도성 중 하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새번역』의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은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신학적 의도까지 전달하는 데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עִיר־נִנְוָה לְאֱלֹהִים을 말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사역 온 3:3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 5.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지의 재구성

성서 본문의 문예적 특징 가운데에는 저자가 독자의 감정과 시각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예술적 장치가 있다. 이미지 활용(imagery), 소리 효과(phonicity), 연극적인 요소(dramatics) 같은 것들이다. 가령

22) 예를 들어 “Now Nineveh was an exceeding great city of three days’ journey” (KJV), “Now Nineveh was a very important city—a visit required three days”(NIV), “Nineveh, a city so large that it took three days to walk through it”(TEV) 등으로 옮기고 있다.

23) P. Tribble, *Rhetorical Criticism*, 178.

성서 이야기는 은유, 직유, 상징, 환유(metonymy), 완곡어법(euphemism) 등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두 실체를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연결해서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돕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하거나 번역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다루는 주제와 본문에 표현된 이미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서 이야기에는 사물의 움직임은 의인화해서 해설하거나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anthropomorphism)이 자주 나온다. 그럴 경우 번역자는 원천 언어가 전하고자 하는 형상적 이미지를 수용 언어의 문장 속에 직접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살려내야 한다.<sup>24)</sup> 요나서 1:15는 그런 예 가운데 하나다.

וַיִּשְׂאוּ אֶת-יֹנָתָן וַיִּטְלֵהוּ אֶל-הַיָּם וַיַּעֲמֵר הָיָם מִיַּעֲמֵרוֹ BHS Jon 1:15

『개역개정』은 1:15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새번역』은 1:15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히브리어 본문 요나서 1:15는 바다를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바다가 뛰노는 것”(『개역개정』)이라는 번역과 “폭풍이 일던 바다”(『새번역』)란 번역이 그 표현이 자아내는 형상에서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새번역』의 표현은 우리말 어법에서 『개역개정』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그러나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히브리어 구문(וַיַּעֲמֵר הָיָם)이 바다를 일부러 의인화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손상시키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히 요란하게 폭풍이 이는 바다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히브리어 원문은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처음부터 바다를 능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은 1:11, 12, 13).<sup>25)</sup>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자 “바다가 점점 사나워지다”가 나중에는 “집어 삼킬 듯이 사나워졌다”는 것이다(은 1:11, 13). 그럴 때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그 성내던 것을”그치고 수동적인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sup>26)</sup>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면서 세상을 온통 휘몰아가던 힘을 지녔던 바다가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때 바다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다가 지녔던 힘이 원래 그의 것이 아니고 야웨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뜻이 된다. 히브리어 본문은 바다를 사람처럼 묘사함으로 독자들의 시각 속에 힘

24)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219.

25) P. Tribble, *Rhetorical Criticism*, 150.

26) Jack M. Sasson, *Jonah*, 136-137.

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각인시키는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새번역』의 우리말 표현은 바로 이런 원문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놓지 못한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인동형론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에서는 『새번역』도 별로 주저함 없이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וַיֵּרָא הָאֱלֹהִים אֶת־מַעֲשֵׂיהֶם כִּי־שָׁבוּ מִדְרָכָם הֲרָעָה וַיִּנָּחַם הָאֱלֹהִים  
עַל־הָרָעָה; BHS Jon 3:10

『개역개정』은 3: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새번역』은 3:10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요나서 3:10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보시고(וַיֵּרָא הָאֱלֹהִי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וַיִּנָּחַם הָאֱלֹהִים)”고 적고 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것이다. 요나서 1:15이나 3:10은 모두 형상화 기술에서 동일한 기법(의인화)을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런데 우리말 『새번역』은 요나서 3:10의 경우에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을 수용 언어로 옮기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바다를 의인화해서 형상화시키고 있는 요나서 1:15의 경우에는 원문이 사용하는 그림 언어(figurative language)를 수용하기에 주저한다. 그 결과 히브리어 원문의 문예적 의도가 우리말 요나서 1:15에서는 사라져버렸다. 왜 그럴까? 성서 번역자가 원문의 그림 언어를 수용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란 형식일치의 번역에 속한다고 단정해버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히브리어 글말이 어색하다고 판단해서 원문의 표현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일까?

히브리어 원문의 문예적 솜씨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요나서 4:4을 예로 들어보자.

וַיֹּאמֶר יְהוָה הֲהִיטֵב הָרָחָ לְךָ BHS Jon 4:4

『개역개정』은 4: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새번역』은 4:4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서 4:4의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And YHWH said, is it good it burns to you?”가 된다. 요나서 4:1-4에서 문장을 이끄는 주 동사는 “타오르다”(הָרָחָ burn)

이다. “타오르다”는 동사에서 요나서 4:1-4는 인클루시오(inclusio)를 이룬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요나서 4:4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모두 히브리어 원문이 드러내고자 했던 “타오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논쟁하시는 것에 있지 않다. 히브리어 구문은 “타오르다/불같이 타다”(תָּרַח)는 동사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불타듯 끓어오르고 있음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은유를 문자적으로 옮겨놓으면 번역문에는 아무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말 본문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개역개정』),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새번역』)으로 옮겨 놓았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동사 תָּרַח로 형상화되는 타오름의 이미지가 우리말 본문에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히브리어 문장이 표출하는 소리 효과를 번역 문장에 살리는 것은 더 어렵다. 히브리어 성어나 그리스어 성서에서 본문을 입말로 낭독할 때 독자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본문이 의도적으로 각인시키고자 하는 예술기법이다. 두운, 각운, 운율, 어휘놀이(wordplay) 같은 것들이 이런 기법에 속한다. 이처럼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소리 상징이나 어떤 소리 속에 내재하는 의미는 수용 언어로 재구성하기가 곤란하다. 소리 대 소리(sound-for-sound)의 번역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나서 1:4b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וַיְהִי סֶעֱרָרָוֹל בַּיָּם וְהָאֲנִיָּה הִשְׁבָּה לְהִשָּׁבֵר BHS Jon 1:4

『개역개정』 온 1:4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라

『새번역』 온 1:4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요나서 1:4b에 있는 히브리어 구문 “וְהָאֲנִיָּה הִשְׁבָּה לְהִשָּׁבֵר”는 폭풍우에 배가 이리저리 휩쓸려 부서지면서 나무판자들이 우두둑 깨지는 소리를 묘사한다. 우리말 번역은 “배가 거의 깨지게/부서지게 되었다”고만 전한다. 배가 부서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부서지는 배의 모습만이 묘사되고 있다. 이런 경우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우두둑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번역해 놓으면 어떨까? 요나서를 비롯한 성서 이야기에는 본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연상하게 되는 청각적 효과들이 사려 깊게 활용된다.<sup>27)</sup> 이런 현상은 특히 시문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서 벤트

27) 최근 일련의 학자들이 구약성서에 수록된 히브리어 문장의 “청각적 특징”(oral-aural character)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성서 본문이 비록 아주 이른 시기부터 문서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고 해도 성서 본문에는 글을 입말로 표현할 때 그 의미를 알아채거나 연상하게 되는 요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문장에 모음부호를 붙이는 작업은 히브리어의 쓰기와 읽기에 모두 동반되는 과정이지만,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는 시각적 장치보다는 청각적 장치에 의해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즉 성서 원문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란트는 “사려 깊은 번역자라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원문이 전달하는 소리 형상을 다소나마 비슷하게 재생하고자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안한다.<sup>28)</sup> 예컨대 요나의 기도(은 2:1-9)를 번역하려면 철저하게 5박자 행으로 되어 있는 시문의 운율과 액센트를 우리말로 옮긴 시에서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자가 원천 언어에만 정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번역자는 원천 언어의 뜻과 구문, 형식과 용례를 살피는 일 못지않게 수용 언어의 어법과, 표현, 쓰임새와 용례에도 세밀한 공을 들여야 한다. 히브리어 시를 우리말 시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시 쓰기에 버금가는 마음앎이의 소산이어야 한다.

## 6. 맺음말,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번역은 뜻이 “통하게” 해야 한다. 성서 번역에서 중요한 것도 뜻이 “통해야” 된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것은 원문의 문법적 형식을 성실히 따랐다는 소리가 아니다. 번역된 문장을 읽으면서도 원문을 읽는 것과 대등한 뜻이 독자들에게 통한다는 소리다. 뜻이 통하지 않는 번역은 아무리 꼼꼼하게 원문을 수용 언어로 옮겨놓았다고 해도 잘된(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뜻이 통하게끔 번역을 했다고 해도 원문의 문학적 특징이 수용 언어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번역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 원문의 장르(genre)가 번역문의 장르로도 표현되어야 한다. 원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구조)이 번역문에서 할 수만 있으면 되살아나야 한다. 원문이 의도적으로 꾸미거나 암시하는 글쓰기의 기교가 있으면 번역문에서도 풍기도록 해야 한다. 번역이 원천 언어의 의미를 수용 언어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작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어의 뜻을 수용 언어로 상응하게 표현하는 의미의 역동적 동등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성서 번역은 벤트란트의 말을 빌면 이른바 “문학 기능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으로까지 나아가

---

흐름을 나타내는 소리를 듣는(찾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S. Niditch, *Oral World and Written Word;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6), 8-24; D.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1999), 15-20; C. Davis, *Oral Biblical Criticism: The Influence of the Principles of Orality on the Literary Structure of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29-62;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222-226; Ernst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chs. 4-6을 보라.

28)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220, 225.

야 한다. 의미의 역동적 전달이라는 번역원칙을 으뜸으로 존중하면서도 그에 버금가게 원천 언어의 문학적 특징이 번역문에 충분히 되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일치의 번역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원천 언어의 문학적 기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원천 언어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뿐이다.

물론 성서 원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지나치게 예술적 기교에 집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미세한 예술적 형식을 수용 언어로 재구성하려고 하다가 원문의 전체적 의미를 왜곡시키는 누를 저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번역원칙의 전반적인 틀은 원천 언어의 의미가 수용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과정에 두어야 한다. 이 틀 안에서 원천 언어의 문예적, 수사학적 의도가 수용 언어로도 되살아나거나 반영되는 문학 기능 동등성의 번역이 수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성서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원문의 문예적 모습에 충실하면서도 의미의 역동적 전달을 이루는 번역을 이루어내기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 왔다. 원문이 지닌 의미의 역동성을 수용 언어로 살리는 번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문과의 형식적 일치란 일정 부분 포기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히브리어 원문의 형식이 우리말 번역에서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래서 우리말 뜻을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히브리어 원문의 형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히브리어의 구조와 우리말 구조가 서로 맞물린다면 우리말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히브리어의 구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형식 일치의 번역과 의미의 역동적 번역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한 결과다.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재구성과 형식의 전달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번역 과정에 요청되는 제 요소- 원문에 대한 성실한 이해, 수용 언어로 재구성되는 원문의 메시지, 번역된 문장에 사용된 표현과 어법의 자연스러움, 원천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지니는 형식-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메시지와 형식, 원천 언어의 특이성과 수용 언어의 어법 등은 번역 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수사학적, 문예적 성서해석은 성서 원문의 미학적 특성이나 수사학적 기교 등을 해석의 주요 요소로 비중 있게 다룬다. 문학 기능 동등성 번역이란 다른 말로는 문예적 번역이나 수사학적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 번역은 할 수만 있으면 성서 원문의 문체나 원천 언어의 미학을 수용 언어의 번역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성서 원문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말 번역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원문의 글말이 그 순서에서 의도적으로 뒤집혀져 있다면 그 뒤바뀐 속내가 수용 언어의 글 바꿈질에도 직간접적으로 표

현되어야 한다. 원천 언어의 문장이 그 문체나 형식에서 의도적으로 꾸며져 있다면 그 미학적 개성이 수용 언어로 된 번역문에서도 기능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번역된 성서를 읽으면서도 성서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아울러 갈무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위에서 살핀 요나서 1:1, 2, 3, 4, 15; 2:1-9; 3:1, 3, 10; 4:4에 대한 검토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보는 예에 속한다.

<주요어>(Keyword)

성서 번역, 역동적 동등성, 문학 기능 동등성, 문예적 번역, 구성, 장르, 이미지  
Bible translation, dynamic equivalence,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literary-rhetorical translation, composition, genre, imagery

<참고문헌>

-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 7-28.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안근조, “서평 -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성경원문연구」 15 (2004), 374-395.
-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 Barr, J., *The Bible in the Modern World*, London: SCM, 1963.
- Berlin, A., *Poe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 Davis, C., *Oral Biblical Criticism: The Influence of the Principles of Orality on the Literary Structure of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De Waard, J. and Nida, 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Nelson, 1986.
- Dorsey, D.,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1999.
- Mojola, A. O., and Wendland, E.,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T. Wilt, ed., *Bible Translation -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13-25.
- Niditch, S., *Oral World and Written Word;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Robbins, V., *Exploring the Texture of Texts: A Guide to Socio-Rhetorical Interpretation*,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 Sasson, Jack M., *Jonah*, AB 24B, New York: Doubleday, 1990.
- Sim, R., “Review of Comparative Rhetoric: A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Introduction (George A. Kennedy)”, *Notes on Translation* 14:4 (2000), 57-60.
- Statham, N., “Dynamic Equivalence and Functional Equivalence: How do they differ?”, *Bible Translator* 54 (2003), 109.
- Trible, P.,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1994.

Vanhoozer, K.,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Sondervan, 1998.

Wendland, E.,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T. Wilt, ed., *Bible Translation -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179-235.

Wendland, E.,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Abstract>

## **Advances in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Prof. Tai-il Wang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n overview of what is called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perspective of dynamic equivalence, in which the informative function of language has been fully considered,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places its emphasis on the various communicative functions of biblical texts on every level of language. It is not to suggest that a more literal or 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 is to be preferred, but to represent in the process of “faithful” translation the stylistic devices and rhetorical techniques that are embedded in biblical literature. Stylistic features of Hebrew rhetoric are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which can help readers or hearers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Scripture correctly. This entails the point that aesthetic and interrelated artistic features of the source text are to be recognized, analysed, and appreciated in translation. Without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entire communicative conventions in the biblical language,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are not fully to be reproduced in translation. The unity, rhetoricity, structure, patterning, imagery, dramatics and many other items pertaining to the original text are no doubt parts of main components of the biblical text, which must be translated. The texts from Jonah 1:1, 2, 3, 4, 15; 3:1, 3, 10; 4:4 are discussed for illustration to describe how literary features can be handled in “meaningful” translation.